

빈곤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이 시 연*

서울장신대학교

본 연구는 빈곤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 간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 지역의 4개구에서 각 구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본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의뢰하여 국민기초수급권 및 차상위계층의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총 16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청소년의 가족스트레스는 우울에 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빈곤청소년의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조절변수로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요인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가족체계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들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빈곤청소년, 가족스트레스, 우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시연, 서울장신대학교, (464-742) 경기 광주시 경안동 219-1,
Tel : 031-799-9133, E-mail : syl@sjs.ac.kr

청소년 시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자율성과 독립성 등 다양한 발달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감 및 우울증 유병률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전체 2005년 남학생의 유병률은 25.6%, 2007년에 36.5%이었고, 여학생은 2005년에 34.7%, 2007년에는 46.6%(보건복지부, 2009)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20명 중 한 명은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만큼 청소년들의 우울감이 높은 상황이다(메디컬투데이, 2010. 11. 22).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 우울의 심각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위협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발한 학계의 연구와 논의가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울은 청소년기의 가장 흔한 정신장애일 뿐 아니라 자살의 위험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박병금, 2009). 우울증은 다른 대부분의 장애와 마찬가지로 일찍 발생할수록 장애가 더 오래 지속되거나 경과가 더 심각하다(Mash, & Barkley, 2003). 일반 성인의 경우 우울증이 언제 발생했는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청소년기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동안 최초의 우울증이나 그에 상당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Bardone, Moffitt, Avshalom, Dickson, & Silva, 1996). 청소년의 우울이 성인들보다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우울한 증상은 부정적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박병금, 2009), 일시적인 사소한 문제로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아 및 청소년의 우울증은 성인들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정서 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임영식, 오세진, 1999).

특히, 빈곤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은 청소년의 삶에 보다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lbers

(2001)는 빈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고, 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이 경험하는 경제적 압력은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Yoder, & Hoyt, 2005). 청소년기에 빈곤을 경험하는 것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umka, Roosa, & Jackson, 1997; Wadsworth, Raviv, Compas, & Connor-Smith, 2005). Goosby(2003)는 경제적 손실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행동 및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경제상태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다(박병금, 2009; 박형수 외, 2010).

이와 같이 가정의 경제상황 같은 다양한 환경적인 여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울을 개인의 기질적이거나 인지적인 문제로만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우울의 원인을 설명하는 많은 연구들은 유전 또는 생물학적 요인에서부터 기질 및 성격(김보경, 민병배, 2006), 생활스트레스(박경, 2004), 또래관계(정영주, 정영숙, 2007) 등을 제시하고 있고, 한편 부모 및 가족환경(김정란, 2004; 우희정, 최정미, 2004; 전영주, 2001; 조옥자, 2005),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환경(박명희, 김창숙, 서영숙, 서희숙, 노현신, 1998) 등을 강조함으로써 청소년의 우울이 가족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의 우울은 우울한 부모, 불안정한 애착, 둔감하거나 거부하는 양육과 같은 가족 요인에 의해 정해지며(Hammen, 2009), 가정적인 곤란이나 부정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유발되기도 한다(임은미, 정성석, 2009; DeRuyck, 2004). 특히, 가족 내의 열악한 환경은 빈곤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청소년에게 가족요인은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 2005).

물론, 가족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모든 빈곤청소년

이 우울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기여하는 변인이 보호요인이다. 보호요인은 위협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에 대한 위협요인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Fraser, Richman, & Galinsky, 1999).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중재하는 요인으로 부모-자녀 간의 관계의 역할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노윤옥, 전미경, 2005; 노정화, 2002; 윤선오, 박명호, 권장수, 2010; 정연호, 류점숙, 신호식, 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인간이 가족관계로부터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며, 의사소통은 표현된 언어적 행위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의미를 주고받을 때에 사용하는 모든 상징과 단서를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Satir, 1983; 공성화, 안향림 역, 1991). 부모-자녀간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은 물론 바람직한 태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최인재, 2006). 박원모, 김미선과 천성문(2008)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우울을 예방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가족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영향력을 적게 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자원으로 파악한 연구가 보고되었다(김정옥, 박순희, 1990; 이정우, 장병욱, 1987; 정민자, 1992). 즉,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Chung, & Rhee, 2009). Xiao, Li 와 Stanton(2011)은 개방적인 가족의사소통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족요인 중 부모의 태도, 양육방식 등의 영향을 강조하지만, 이영미, 민하영과 이윤주(2005)는 가족과정의 한 측면인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부정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청소년 우울에 영향

을 주고, 특히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박병금, 2009; 선명숙, 2011). 또한 Robertson과 Simons(1990)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우울과 비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일한 가족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부모-자녀간 폐쇄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생성하며, 이로 인한 욕구불만이 내면화될 때 자녀의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김선희, 2009; 오정숙, 2007; 이순형, 이옥경, 김지현, 2005). 즉,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완충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이와 같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가족스트레스와 빈곤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제 3의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인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살펴본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스트레스가 빈곤청소년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인이 가족스트레스와 우울을 조절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적인 이론적 뒷받침을 통해 보다 나은 실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좀 더 높은 효과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빈곤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수준에 따라 빈곤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가 달라지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빈곤청소년으로 국민기초수급권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로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울 지역의 4개구에서 각 구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2008년 9월 14일부터 2008년 11월 15일까지 우편 발송 및 직접 방문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 배포 전·후에 전화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하였다. 그 결과 총 200부를 배포하여 171부가 회수되어 86%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 부정확한 응답을 한 6부를 제외하고 총 165부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83명(50.3%), 여자 82명(49.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2학년 45명(27.3%), 중학교 3학년 38명(23%), 고등학교 1학년(18.2%)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1.8%로 고등학생보다 다소 많게 나타났다.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우울

빈곤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ovacs와 Beck(1977)이 개발한 아동용 우울척도로 이 척도는 한유진과 유안진(1994)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우울을 우울한 기분을 중심으로 조사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척도로 총 27문항으로 반응은 우울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0~2점까지이며 총 0~54점 사이에 분포가 가능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85로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udson(1997)이 개발하고 이희영(1997)이 번안하여 사용한 가족관계 척도(IF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문제의 범위, 심각성,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응답자의 가족 문제의 심각성과 가족 내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측정도구로 간주될 수 있다.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사용 가능하고 총 25 문항으로 전혀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그렇다 7점까지 리커트식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내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95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빈곤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Barne와 Olson(1982)이 개발하고 민혜영(1990)이 번안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질문지(PAC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 척도별로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그렇다 5점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 척도 별로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 가능하며, 각 하위척도는 역점수로 채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척도를 역점수로 변환하였다. 이에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20문항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20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부-자녀간 의사소통 .79, 모-자녀간 의사소통 .88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 중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165개 설문은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작업을 진행한 후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빈곤청소년

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우울의 평균은 2점 만점에 .54로 나타났고, 가족스트레스는 7점 만점에 2.87로 나타났다. 모-자녀간 의사소통은 5점 만점에 3.40으로 나타나 2.79로 나타난 부-자녀간 의사소통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모-자녀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이 보다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기술통계

요인	N	M	SD	
우울	165	.54	.27	
가족스트레스	165	2.87	.99	
의사소통	부-자녀간	143	2.79	.51
	모-자녀간	156	3.40	.59

가족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우울의 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가족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와 부-자녀간 의사소통은 $p < .01$ 수준에서 부적상관을 보였고, 가족스트레스와 모-자녀간 의사소통과는 $p < .01$ 수준에서 부적상관을 보였다.

상관계수 및 이에 대한 유의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n=165)

변인	1	2	3	4
1. 가족스트레스	1.00			
2. 부-자녀간 의사소통	-.33**	1.00		
3. 모-자녀간 의사소통	-.60**	.16	1.00	
4. 우울	.50**	-.15	-.46**	1.00

** $p < .01$

가족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요인이 빈곤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요인이 빈곤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울에 대한 회귀모형의 값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VIF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두 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잔차의 독립성에도 d통계치가 1.982로 나타나 문제가 없었다. 가족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요인이 빈곤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는 27.4%로 나타났다.

빈곤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가족스트레스($\beta = .375$), 모-자녀간 의사소통($\beta = -.226$), 부-자녀간 의사소통($\beta = -.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빈곤청소년의 우울이 증가할 수 있고, 부-자녀간 및 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낮아지면 빈곤청소년의 우울이 증가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3. 가족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요인이 빈곤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	우울 (n=165)	
	β	t
가족스트레스	.375	4.374***
부-자녀간 의사소통	-.160	-2.227**
모-자녀간 의사소통	-.226	-2.736**
R^2	.287	
수정된 R^2	.274	
F	21.638***	

p<.01, *p<.001

빈곤청소년의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빈곤청소년의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요인들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부-자녀간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효과, 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에 따르면 변화된 설명력은 2.4%(R^2 변화량=.0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빈곤청소년의 가족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자녀간 의사소통 변인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고, 모-자녀간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조절효과가 나타난 부-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해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회귀모형의 F값을 살펴보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한 변수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7). 그 결과, VIF계수가 2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으며, 잔차의 독립성에도 d통계치가 1.926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빈곤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부-자녀간의 조절효과는 주효과($\beta = -.110, p < .05$)와 상호작용효과($\beta = -.158, p < .05$)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

표 4. 우울에 대한 부-자녀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요인	우울 (n=165)	
	β	t
1단계	가족스트레스	.511 7.154***
	부-자녀간 의사소통	.223 2.250***
2단계	가족스트레스	.504 7.145***
	부-자녀간 의사소통	-.110 -1.149*
	가족스트레스×부-자녀간 의사소통	-.158 -2.304*
R^2	.278	
수정된 R^2	.265	
R^2 변화량	.024*	
F	20.665***	

*p<.05, ***p<.001

서 부-자녀간 의사소통이 빈곤청소년의 가족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조절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자녀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좀 더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부-자녀간 의사소통의 값을 세 수준으로 나누어 가족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자녀간 의사소통의 값을 세 수준으로 나누어 부-자녀간 의사소통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가 큰 경우를 부-자녀간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 부-자녀간 의사소통이 평균인 경우를 조절변수가 보통인 집단, 평균보다 1 표준편차가 작은 경우는 부-자녀간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으로 설명하였다. 표 4에서 얻은 계수와 세 개의 조절변수 값을 각각 대입하여 세 개의 회귀식이 되었고 이는 아래와 같다.

부-자녀간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

$$y = 1.868 + 0.145x$$

부-자녀간 의사소통이 보통인 집단

$$y = 1.830 + 0.137x$$

부-자녀간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

$$y = 1.798 + 0.130x$$

위의 세 가지 조절회귀 식을 그래프로 작성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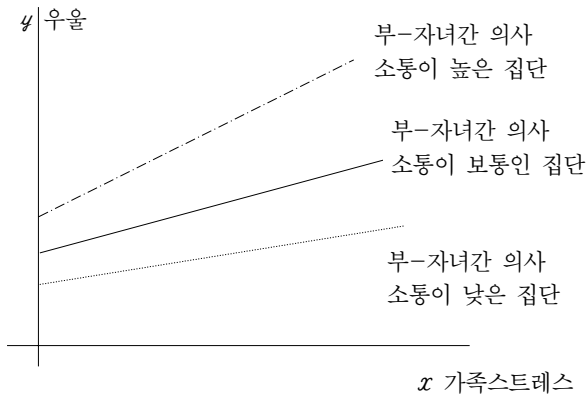


그림 1. 부-자녀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위의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자녀간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족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자녀간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자녀간 의사소통이 가족스트레스와 빈곤청소년의 우울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빈곤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요인 간 조절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청소년의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스트레스가 빈곤청소년의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박병금, 2009; 박형수 외, 2010; 오경자 외, 2005; 임은미, 정성석, 1997; DeRuyck, 2004; Yoder, & Hoyt, 2005; Wadsworth, Raviv, Compas, & Connor-Smith, 2005).

둘째, 빈곤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서 빈곤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분석한 결과, 빈곤청소년의 우울에 있어서 부-자녀간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빈곤청소년이 가족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울이 증가할 수 있지만, 부-자녀간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더 완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윤선오, 박명호, 권장수, 2010)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연구한 이영숙과 김정옥(2002)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우울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반면, 이은하와 정혜정(200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우울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김영희, 안상미, 2008), 본 연구 결과에서도 미루어 보듯이 향후 이러한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실천현장에서의 욕구는 높으나, 아직 학계의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빈곤청소년의 우울에 개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가족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영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과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함께 실시할 수 있는 가족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가족체계를 중심으로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경감시키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Sheeber, Hops, & Davis, 2001; Thompson, Bender, & Kim, 2011). 가족체계에 기반 하여 청소년

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예컨대, 우울증의 징후, 증상, 대처방법 등)을 실시하는 것이 청소년의 우울 수준 경감에 도움이 된다(Cheung, Ewigman, Zuckerbrot, & Jensen, 2009).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교육 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빈곤청소년과 그 가족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빈곤하지 않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빈곤이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가족 환경이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우울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빈곤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빈곤가정 청소년의 부적응에는 가족위험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오경자, 문경주, 2006)는 이들을 위한 예방적 개입에서 우선적으로 가족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빈곤 가족이 지역사회 내 상담소, 복지관, 병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교육 등 가족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 접근성이 매우 낮아 효과적인 도움을 받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청소년의 가족 구조, 경제수준, 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즉 국민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청소년의 우울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스트레스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족 간의 갈등이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고(Baber, & Erickson, 2001; Reed, & Dubow, 1997; Ohannessian, Lerner, Lerner, & Von Eye, 1996), 국내에서도 가족갈등이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안상미, 2008).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총 39,47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박형수 외, 2010). 따라서 빈곤청소년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하여 학계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빈곤청소년이 경험하는 내재화된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부모-자녀간 관계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낮출 수 있다(최인재, 2010). 우리나라 고등학생 총 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남녀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영희, 안상미, 2008). 이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빈곤청소년의 부모와의 원활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빈곤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후속연구와 빈곤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가족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 줄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표집은 서울지역 4개구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하여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높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보경, 민병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21-236.
- 김선희 (2009).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 (1990). **10대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

- 방성과 그 귀인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김영희, 안상미 (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1.
- 김오남, 김경신 (1994).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105-119.
- 김정란 (200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 및 자녀의 우울.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83-690.
- 김정옥, 박순희 (1990). 가족스트레스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127-145.
- 노윤옥, 전미경 (2005).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1), 1-66.
- 노정화 (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메디컬투데이 (2010). 청소년 우울증, 반항감으로 착각했다간 '위험'. 2010. 11. 22.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42809>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광배, 신민섭 (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 박경 (2004). 부정적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265-283.
- 박명희, 김창숙, 서영숙, 서희숙, 노현신 (199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우울과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2(2), 67-88.
- 박병금 (2009). 청소년 우울의 발달경로와 자살생각.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1, 207-235.
- 박원모, 김미선, 천성문 (2008).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9(3), 1215-1229.
- 박형수, 노지숙, 배상열, 최문실, 고대식, 박종 (2010). 우리나라 중학교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3(1), 19-28.
- 방명애, 김봉현 (2010). 청소년 우울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놀이치료연구**, 14(1), 105-119.
- 백양희, 최외선 (1997). 환경변인 및 내적 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3-48.
- 보건복지부 (2009. 12). 2009. 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 선명숙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 (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53-71.
- 오경자, 문경주 (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59-76.
- 오정숙 (2007). 아동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희정, 최정미 (2004).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 25(4), 191-200.
- 윤선우, 박명호, 권장수 (20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0(1), 25-47.
- 이순형, 이옥경, 김지현 (2005).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과 불안 판별 연구: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99-111.
-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5).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53-62.

- 이영숙, 김정옥 (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 이은하, 정혜정 (2002).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한국가족복지학회지**, 5(2), 69-86.
-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자아존중감·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69-84.
- 이정우, 장병옥 (1987). 기혼 여성의 의사소통유형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6, 215-241.
- 이희영 (1997).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심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사업적 개입 마련을 위하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식, 오세진 (1999). 청소년 자살과 예방. **사회과학연구**, 12, 141-158.
- 임은미, 정성석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 및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장기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16(3), 99-121.
- 임점숙 (2000).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녀의 우울 성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주 (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39(1), 151-167.
- 정민자 (1992). 임상-정상가족의 가족체계유형 및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 189-207.
- 정영주, 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간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정연호, 류점숙, 신호식 (2005). 부모-청소년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2), 145-158.
- 조옥자 (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26(3), 141-161.
- 조유진 (2005). **집단괴롭힘 목격과 피해 경험의 가해화 경로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인재 (2006).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2010).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 생각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9), 105-130.
- 한유진, 유안진 (1994).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귀인양식과 학업성취. **대한가정학회지**, 32(3), 147-157.
- 한인수 (2003). 경영연구에 있어서 조절효과검증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연구**, 25(2), 137-153.
- 홍세희 (2007). **고급방법론 워크숍Ⅲ: 위계적, 종단적 자료에 대한 다층모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Albers, A. B. (2001). *Poverty, social context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cross the early life cour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Baber, B. K., & Erickson, L. D. (2001). Adolescent social initiative : Antecedents in the ecology of social connection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 326-354.
- Bardone, A. M., Moffitt, T. E., Avshalom, C., Dickson, N., & Silva, P. A. (1996). Adult mental health and social outcomes of adolescents girls with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Development Psychopathology*, 8, 811-829.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irmaher, B., Ryan, N. D., Williamson, D. E., Brent,

- D. A., & Kaufman, J. (1996).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Part II.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1575-1583.
- Cheung, A., Ewigman, B. E., Zuckerbrot, R. A., & Jensen, P. S. (2009). Adolescent depression : Help your patient emerge from the darkness.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58(5), 257-264.
- Conley, C. S. & Rudolph, K. D. (2009). The emerging sex difference in adolescent depression : Interacting contributions of puberty and peer str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 593-620.
- DeRuyck, K. A. (2004). Depression. In S. W. Lee(Eds). *Encyclopedia of school psychology*, 155-157. Sage Publications.
- Dumka, L. E, Roosa, N. W., & Jackson, K. M. (1997). Risk, conflict, mothers' parenting, and children's adjustment in low-income, Mexican immigrant, and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09-323.
- Fraser, M. W., Richman, J. M., & Galinsky, M. J. (1999). Risk protection, and resilience :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3), 131-143.
- Goosby, B. J.(2003). *The impact of poverty duration on youth behavioral and cognitive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Hammen, C. (2009). Adolescent depression : Stressful interpersonal contexts and risk for recurr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4), 200-204.
- Hudson, W. W. (1997). *The WALMYR Assessment Scales Scoring Manual*. Tallahassee, FL: WALMYR Publishing Comany.
- Kovacs, M. & Beck, A. T. (1977).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In J. G. Schulerbrant & A. Raskin(Eds.), *Depression in Childhood: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1-25. New York: Raven Press.
- Lee, C., Chung, J., & Rhee, M. (2009). The influence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depression :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irrational belief.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2), 433-448.
- Marcotte, D., Fortin, L., Potvin, P., & Papillon, M. (2002).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 Role of gender-typed characteristics, self-esteem, body image, stressful life events, and pubertal statu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0(1), 29-42.
- Mash, E. J., & Barkley, R. A. (2003). *Child Psychopathology*. New York: Gilford press.
- Ohannessian, C. M., Lerner, R. M., Lerner, J. V., & Von Eye, A. (1996). Discrepancies in adolescent's and parents'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 101-114.
- Reed, J. S., & Dubow, E. F. (1997). Cognitive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communication in clinic-referred and nonclinical mother-adolescent dya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91-102.
- Robertson, J. F., & Simons, R. L. (1990).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25-138.
- Satir, V. (1991). *Conjoint Family Therapy*. (공성화, 안향림 역, 가족치료). 서울: 성화사.

- Sheeber, L., Hops, H., & Davis, B. (2001). Family processes in adolescent depress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1), 19-35.
- Thompson, S. J., Bender, K., & Kim, J. (2011). Family factors as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runaway youth : Do males and females differ? *Chil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8, 35-48.
- Wadsworth, M. E., Raviv, T., Compas, B. E., & Connor-Smith, J. K. (2005). Parent and adolescent responses to poverty related stress : Tests of mediated and moderated coping model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2), 283-298.
- Xiao, Z., Li, X., & Stanton, B. (2011). Perception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within families : It is a matter of perspective. *Psychology, Health & Medicine*, 16(1), 53-65.
- Yoder, K. A. & Hoyt, D. R. (2005). Family economic pressure and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 Applicat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3), 251-264.

원 고 접 수 일 : 2011. 0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1. 10. 26.

게 재 결 정 일 : 2011. 11. 11.

Family Stres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Among Poor Adolescents: Focus on Moderat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i Yeon Lee

Seoul Jangs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family stress,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mong 165 poor adolescents. The major findings were 1) family stres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epression 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epression and 3)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ss and depression was buffered b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conclusion, depending on the level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he effects of family stress for poor adolescent on their depression is differen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ffects directly on depression and it is also a moderating variabl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reviewed, as are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poor adolescent, family stress, depressio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